

‘15년 감감무소식’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파크 청신호 켜지나

5·18민주화운동 대표 사적지인 옛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던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에 처음으로 사업 수행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지역사회 오랜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옛광주교도소 부지 내 민주인권기념파크(가칭) 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기재부에 옛광주교도소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된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시업 제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같은달 4일 기재부 출장 결과 긍정적인 해석 결과를 갖고 돌아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기재부는 광주시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서 개발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선도시업 제의를 뜻하는 긍정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18 사적지 22호인 옛광주교도소 부지(8만7000여㎡)는 1980년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 시민들을 진압 하러 온 계엄군이 주둔한 곳이다.

3공수는 1980년 5월21일 전남대 정문에서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무력 진압, 오후 4시경 광주교도소로 주둔지를 옮기며 시민 120~150여 명을 지붕이 있는 트럭 수 대에 태워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집안에 최루탄을 던져넣어 시민 일부가 질식해 숨졌고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계엄군의 증언도 나오면서 3공수의 교도소 내 암매장 의혹이 크게 불거졌다.

20사단은 5월24일 정오에 송정리 비행장으로 철수하는 3공수여단과 교대해 5월 27일 새벽까지 교도소에 주둔했다. 5·18 당시 광주교도소 교도관들이 기록한 ‘광주 사태 시 소요 체포자 치료현황’ 문건에는 20사단 주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했다는 기록과 증언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만행들이 저질러졌는지는 공식 파악된 바가 없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2지역대 7중대장을 맡았던 박성현(74)씨가 지난 3일 광주 북구 각화동 옛 광주교도소를 둘러서 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5·18 시민 학살·암매장 의혹… 보존·활용 필요성 기재부, 주거단지 짓는 국유재산 선도시업 추진 수년째 표류중 정권 바뀌며 제외 분위기 ‘훈풍’ 소재지 복구, ‘5·18 메모리얼 파크’ 건립 복안도

이같은 역사적인 내용들로 미뤄봐 해당 부지 보존·활용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교도소가 복구 일목종으로 이전한 2010년 이후 부지 활용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2019년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시업 부지로 선정, 부지 80%를 개발하고 20%를 공원으로 지어 보존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졌다.

이에 문재인·윤석열 정권이 옛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소재지인 광주 북구도 훗날 옛광주교도소 부지가 선도시업에서 제외됐을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민주인권

파크에서 나아가 세부적인 5·18메모리얼 파크 건립 내용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유재산 선도시업으로 옛광주교도소 부지 등 총 16곳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정상 추진 중인 곳은 4곳에 불과하고 12곳에서는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상 추진 중인 곳은 수도권 주거단지 공급 사업 뿐이고 주민 마찰을 겪는 곳은 대다수가 지방이다. 복구는 국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 옛광주교도소 부지에는 5·18메모리얼파크와 같은 기념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북구의 5·18메모리얼파크 복안은 체험·정주·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다. 뉴욕의 그라운드제로, 독일 아우슈비츠 추모공원 등에서 착안했다. 5·18역사관을 필두로 민주화 테마관, 한강 문학관, 김대중 역사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5·18메모리얼파크에 파리 개선문의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은 상징물을 조성, 5·18의 역사성을 살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선도시업에서 제외돼 옛광주교도소가 광주의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년째 표류중이던 기재부 선도시업이 정권이 바뀌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맞는 것으로 보인다. 확정적인 것은 아닌 상황”이라며 “민주인권파크 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업이다. 해당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기에 향후 기재부·행안부 사이 협의된 공문을 회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오권철 기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이 8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상청에서 기상청 본부와 기상예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괴물폭우’ 예측 못한 광주기상청… 오보청 오명 “괴롭다” 광주·전남 ‘괴물폭우’ 강수량 예보 빗나가 120mm 온다더니 고작 0.7mm ‘오보청’ 지탄 예보관들 “부담감에 잠 못 자… 가슴 졸여”

“예보가 빗나갈 땐 괴롭습니다.”

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기상청 예보관 사무실에는 묘한 적막이 흘렀다. 기상청 본부와 예보 브리핑을 준비하는 예보관들의 컴퓨터 모니터 4대를 번갈아 들여다보며 실시간 기상 위성 영상과 레이더 영상을 살폈다.

주말인 9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 지역에 최대 200mm 상당의 거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면서 예보관의 표정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괴물폭우’가 쏟아진 날을 비롯해 잇따라 광주기상청 예보가 빗나가 지역민들에게 ‘오보청’이라는 지탄을 받았던 탓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광주에는 426.4mm의 비가 내려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한 달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역대 최대 일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하지만 당시 광주기상청은 5분의 1 수준인 20~80mm를 예보했다.

지난 3일에도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대 30~50mm, 많은 곳은 50~8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무안군에 시간당 142.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밤부터 다음날인 7일 오전까지 최대 120mm 상당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0.7mm에 그쳤다. 당시 시민들은 물론 경찰과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또 다시 폭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상황을 지키는 등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기상청은 예보관 3명과 관측요원 1명, 재난방송 문자 전문요원 1명 등 5명이 1개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12시간마다 기상관측을 진행, 실시간 기상 발표를 위해 하루에도 십여차례 토의를 한다.

슈퍼컴퓨터와 지상 관측장비, 위성 레이더 등을 활용한 기상 자료를 수집해 매일 기상청 본부와 전국에 있는 9개의 지방기상청 등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습적인 폭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예보관들의 설명이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고 ‘태풍의 씨앗’이라 볼 수 있는 열대요란이 자주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강한 수증기를 만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기상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광주기상청은 예보관 3명과 관측요원 1명, 재난방송 문자 전문요원 1명 등 5명이 1개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12시간마다 기상관측을 진행, 실시간 기상 발표를 위해 하루에도 십여차례 토의를 한다.

슈퍼컴퓨터와 지상 관측장비, 위성 레이더 등을 활용한 기상 자료를 수집해 매일 기상청 본부와 전국에 있는 9개의 지방기상청 등과 머리를 맞대며 논의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기습적인 폭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예보관들의 설명이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고 ‘태풍의 씨앗’이라 볼 수 있는 열대요란이 자주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가 강한 수증기를 만들면서 강수량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기상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보관은 “예보가 틀릴 때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롭다. 밥이 넘어가지 않을 때도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보니 예보가 빗나가면 자책을 할 수밖에 없다. 퇴근을 한 뒤에도 주말에도 휴대전화를 붙잡고 레이더 영상만 보고 있게 된다”면서 “오늘 내 예보가 틀리지는 않을까 항상 가슴을 졸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단 ‘오보’에 기상청 예보를 불신,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광주기상청 예보관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광주 무등산 마을 일부 반딧불이 서식지가 지난달 중순 유례 없는 폭우로 휩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 북구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등에 따르면 마을 내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진 충효동 풍암천이 지난달 17일 폭우로 범람했다. 당일 광주에는 총 426.4mm의 비가 내렸다. 1939년 기상관측 이후 광주지역 역대 최고 일강수량이다.

폭우로 풍암천을 따라 난 천변 독 수백미터가 파손되고 토사와 바위 등이 쓸려갔다. 반딧불이의 서식지인 풍암천 습지대

‘극한호우’ 무등산 자락 반딧불이 서식지 일부 파손

“미래 극단 기후, 반딧불이 서식지 위협 우려도”

도 떠나려가면서 다음 달이면 성체가 될 늦반딧불이의 유충도 휩쓸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풍암천은 지난해 반딧불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체험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지역 주민들은 하천 인근 서식지 파손으로 다음 달 천변에서 반딧불이 성충 관측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평촌명품마을은 남구 대촌과 함께 지역의 청정 생태를 보여주는 반딧불이 서식지로 유명하다. 반딧불이는 주로 습지, 늪지, 강가 등 습한 지역에서 서식한다.

특히 풍암천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이 서식하는 생태보존지역이기도 하다.

주민들은 앞으로 잦은 폭우와 폭염 등

극단 기후로 반딧불이 서식지가 위협 받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

평촌명품마을을 자연환경해설사 A씨는 “지난달 보이던 유충들이 폭우로 휩쓸려가면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다행히 마을 다른 반딧불이 서식지는 무사하다고 했다. 또 “반딧불이 유충과 그 먹이인 명주달팽이는 습지에 서식한다”며 “잦은 폭우로 서식지가 떠나려가거나 폭염으로 습지가 마르는 등 지형이 변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송현근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